

9월27일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관'을 다녀옴

한글 624란의 이사장직을 너무 오래 맡고 있어. 기쁜 마음으로 10월 1도 당일
러거 못하리라 생각함. 내려왔던 것은 분명 이대로 저의 한계를 인정하자 오히려
책임이 지니는 어려움이 더 클 것이라 생각하여 이번에는 나의 뜻을 굽히지 않기로
하리니 비록 부끄러움에 정반의 주기로 하겠지만 해볼 만하다 생각함.

위에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한 책임이 떠날것을 간절히바라 9(2)는 함께한 모든분들의 열정을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두대리의 최후의 시민회 공약재판인 여학생재판이라 전혀 없던 시도를 서슴없이 완성해주신 이리호여사님, 가져히 자문 에 응해주신 민정홍목님, 민병조님, 최영진목사에 큰 힘을 담당하여 주신 장영진 님과 이길여사님, 호림대목이여 이념적인 재판을 반증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 여담 계원모듬, 재판장이라 평화를 꿈꿔왔던의 선봉자이었던 여담시문과이계영님, 재판부진위전의 58명의 삶과 함께 강릉의 공동위원장님과 128개관해장 들인, 함평회관을 그리고 대충평내외분들 비롯한 후원자들 대취해 주신분들, 이모든분들이여 열 기에 한결여담재판은 맺어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이 귀를 창공해내 9(3)년의 역사를 이끄러왔 이사님들, 운영위원님들, 강사님들, 카운셀러들, 다양한 형태의 기부자들과 봉사자들과 그리고 심부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illegible]

I. 내국 한민족의 창궐 당시 상황에서의 여성 재건 설과 2. 여성 창궐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의 우선 방략의 구별에 대해서 해설이 있다. 근래에 와서 기층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건인 사회공헌 활동의 활성화로 우리 사회의 기층 문화에
 (변화) (비결)이 부각되자 한곳으로 다행한 일이다. 기층 문화에로 사회복합은 없겠고
 있어서 후발주자인 여성 시민의 참여와 재건의 성장 추세에 크게 뒤러고 있을 것
 이다. 그러나로 인구의 많은 여성이 동남아로 해외 진출하는 우리 사회의 실정
 을 고려할 때 국내 인식이 점차로 변화되고 있어 여성 재건의 문제가 한
 으며 이제와 여성이 무엇으로 권위로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 사회

이렇듯 여생재란이 사회적인 인정을 받게 된 후에는 여러모로인하여 여러 가지
(대중에게 회향심)라는 기치아래 설악산 재란의 목적과 기본정신 그리고 운영
원칙을 표시 일러 후대에게 지적해 주어야 할 여러 가지가 있다. 재란은 순수 민간 재단
으로서 사회경제적정의 없애 주거나 사회적인 관여를 재단이로서 행하지 않고
기존의 사회경제적지향하에 공적영역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사회책임의식을 지니
고 있는 여생재란에 이 함의를 지닌 것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고 또한 문화적
향상에 함의는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전통이다.

이것이 권력으로서 제각각이 다른데의 관례가 되지 않기 위해 하여금 직권으로만
중요한 지위(의식권)로 관례들이 생기면 권력에 부합되는 신념을 가지고
신념이 없기 때문에 신념적인 예언도 없고 권력도 없기 때문에 지위권의 일부가
이것이 권력으로서 신념이 없기 때문에 신념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다 ①

박영숙 이사장님께
제간지 원고입니다.

여는 글

9년간 함께 한 '한국여성재단'을 떠나며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1

한국여성재단의 이사장직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기
금목표의 10분의 1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나태했던 것은
분명 아는데 저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임기에
재삼 눌러 앉았던 3년 전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나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는데 정관의 규정으로 퇴출당할 뻔
해서 웃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또 다른 삶에 도전할 계기가 마련된 것을 감사하면서 9
년간 함께한 모든 분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기억합니
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시민사회 공익재단인 여성재단 설립이라는
전례 없던 시도를 서슴없이 앞장서주신 이희호 여사님, 기꺼이 자
문에 응해주신 故 강원룡 목사님과 민병준님, 출연금 조성에 큰
몫을 담당하여 주신 장영신님과 이길여님, 초정파적이며 이념적인
재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신 여성계 원로들, 재단 설립
의 필요성을 공론화 하는 일의 선봉장이었던 여성신문과 이계경
님, 재단 추진위원의 58명의 남녀 각계각층의 공동위원장님들과
128개 단체장들인 창립회원님들, 그리고 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한
출연금을 쾌척해 주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한국여성재
단은 발족할 수 있었습니다.

재간지추신

무에서 유를 창출해낸 9년간의 역사를 이끌어온 이사님들, 운영
위원님들, 각 위원회의 위원님들, 홍보대사님들, 다양한 형태의 기

부자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실무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년 동안 재단이 100억 원에 가까운 지원금으로 400여개의 파트너 단체들과 함께 평등사회 구축, 여성의 인권보호, 빈곤의 여성화 해소, 다문화 사회정착, 여성의 정치세력화, 성인지적인 환경 운동 전인, 여성의 글로벌 지도력 양성, 활동가들의 재충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성운동 및 활동전개, 그리고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30만의 재단 가족들의 물심양면의 성원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IMF 한파 속의 창립 당시 상황에서의 여성재단 설립과 여성활동을 위한 지원요청은 문전박대의 구절에 가까운 형국이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갖추기의 필수 요건인 사회공헌 활동의 활성화로 우리사회의 기부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기부문화에도 성차별은 엄존하고 있어서 후발주자인 여타 시민사회공익재단의 성장 추세에 크게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인구의 반인 여성이 동반 성장하지 않는 한 우리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여성재단의 존재가 힘을 받으며 이제는 여성의 몫은 권리로서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여성재단이 사회적인 인정을 받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딸들에게 희망을'이란 기치아래 설립된 재단의 목적과 기본정신 그리고 운영원칙을 초지일관 투명하게 지켜온 데서였다고 여겨집니다. 재단은 순수민간기구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남녀 독지가의 자발적인 참여로 재원이 조성되고, 마련된 기금은 성평등을 지향하며 공적영역이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자임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여지며, 사회적으로는 나눔과 돌봄의 문화정착과 확산에 힘쓰는 일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운영의 원칙으로는 재단이 또 하나의 단체가 되지 않기 위해 사업을 직접 전개하지 않으며 지원사업 선정기준으로 단체들이 각기 고유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원 요청시에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여 지원금의 일정 부분을 인건비와 경상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 지원기관과 차별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파트너단체들이 지원활동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재단운영은 물론 시민단체 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도덕적 뒤통수'라는 논란을 접하며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은 발생한 불상사는 예측이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익단체들의 운영과 육성을 위한 현행제도나 관행자체가 비현실적인데서 시민사회 운동체들에게 투명성을 요구할 수 없을뿐더러 지켜낼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이후 우리사회 변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는 여성단체들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기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하는 어느 때 보다 더 긴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일은 올바른 시민사회 단체 육성을 위한 제도 및 관행, 그리고 환경 마련이라고 여겨집니다. 제대로의 환경조성 없는 상황에서의 시민사회운동의 존립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오바마의 '예스 위 캔'이란 외침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42
보람을 찾아 산 저의 제2의 생을 재단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인내심과 너그러움으로 보살피 주신 함께 했던 모든 분들께 다시금 머리 숙입니다. 이제 저는 저를 고용하는 제3의 생을 향해 출발합니다. 마음 든든한 것은 재단이 훌륭한 새 전장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계간지의 '여는 글'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9년간의 세월 몸담고 있던 재단을 떠나는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재단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송구영신의 문안도 겸해 드립니다. 복 많이 지우시고 나누세요.

9년간 함께 한 '한국여성재단'을 떠나며

2008. 12
2008. 12. 2
18. 5. 04

박영숙 본재단 이사장

12월 31일이 되면 저의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함께 한 9년간의 세월은 저에게는 길기도, 그리고 짧기도 한 세월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9년간이란 한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자리에 있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어떤 조직이건 간에 회피해야 하는 '매너리즘'에 빠져들기에 족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려고 했던 일들을 얼마나 성취해냈는가 하는 점에서 살펴보면 시간이 짧았습니다. 나태했던 것은 아닌데 분명 능력부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금목표는 10분의 1도 달성하지 못했으며 파트너단체들의 버팀목 역할도 충분치 못했습니다. 기부문화 확산도 공익활동을 위한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기부문화에서의 성차별도 견어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부문화 확산에 절대 필요한 제도의 개선이나 제정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평등사회의 주축으로서의 여성대중을 튼튼한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일도 뜻대로 이루어 놓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절실히 요구되는 시민사회공익재단들의 공고한 연대도 체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9년 동안 100억 원에 가까운 지원금으로 400여 개의 파트너단체들과 함께 평등사회 구축, 여성의 인권보호, 빈곤의 여성화 해소, 다문화사회 정착, 여성의 정치세력화, 성인지적인 환경운동 견인, 여성의 글로벌지도력 양성, 활동가들의 재충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성운동 및 활동전개, 그리고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여 한국여성재단이 약자 편에 서는 사회적 서비스기관으로서 확실하게 우리사회에 자리매김된 것은 다행입니다.

이제 여성재단은 주변화 되어있는 여성들이 주류화를 향한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으로서, 기부문화에서 결집된 목소리로 인구의 반인 여성의 몫을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의 결집체로서, 여성이 동반성장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된 기업의 사회공헌팀들이 자발적으로 선정하는 사업추진의 파트너가 되기까지 이른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여성재단은 이제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 후퇴 없는 전진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또한 이끌어내야만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듯 여성재단이 사회적인 인정을 받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기치 아래 설립된 재단의 목적과 기본정신, 그리고 운영원칙을 초지일관 투명하게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재단은 순수민간기구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남녀독지가의 자발적인 참여로 재원이 조성되고, 마련된 기금은 평등사회를 지향하며 공적 영역이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자임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이며 사회적으로는 나눔과 돌봄의 문화 정착과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운영의 원칙으로는 재단이 또 하나의 단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을 직접 전개하지 않으며 단체들의 사업지원은 고유 목적을 달성하도록 각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은 실질적인 것으로 하되 인건비와 경상비도 포함하

도록 하고 있는 것은 여타 지원단체들과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파트너 단체들의 지원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단운영은 물론 시민단체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불행한 것은 오늘날의 공익단체들의 운영과 육성을 위한 제도나 관행이 극히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운동체들에게 투명성을 요구할 수도, 지켜낼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도덕적 닷'이라는 논란과 발생한 불상사는 예견되어 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창립 9주년 기념행사에서 내세운 '구비구비 열을 향해 날자'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지도력이 새로운 꿈을 안고 새로운 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든든합니다.

이제 저에게 또 다른 삶에 도전할 계기가 마련된 것을 감사하면서 9년간 함께 한 모든 분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인 여성재단 설립이라는 전례 없는 시도를 서슴없이 앞장서주신 이희호 여사님, 기꺼이 자문에 응해주신 고 강원룡 목사님과 민병준님, 출연금 조성에 큰 몫을 담당하여주신 장영신님과 이길여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재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여주신 여성계 원로들, 재단설립을 공론화하는 일에 선봉장이 되어준 여성신문과 이계경님, 58명의 남녀 각계각층의 재단추진공동위원장님들과 128개 단체장들로 이루어진 창립회원님들, 그리고 출연금을 쾌척해주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한국여성재단은 발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9년간의 역사를 이끌어온 이사님들, 운영위원님들, 각 부위원님들, 다양한 형태의 재정후원자들, 홍보대사님들을 필두로 하는 재능 기부자들과 발란티어들, 헌신적인 파트너단체들,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보람을 찾아 산 저의 제2의 인생을 재단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인내심과 너그름으로 보살펴주신, 함께했던 모든 분들께 다시금 머리 숙입니다. 지금 제가 저를 고용하는 제3의 삶을 향해 떠나면서 기원하는 것은 재단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입니다. 새해에도 많은 복 받으시고 나누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